

인천공항, 지난해 국제여객 6768만명 세계 TOP5 진입

샤를드골 · 창이공항 제치고 5위...1위 두바이 · 2위 런던 히드로 · 3위 홍콩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탑5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2018년도 세계 공항 실적 보고서'에서 인천공항은 지난해 국제 여객 6768만명을 기록, 파리 샤를드골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제치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전경.

인천공항이 지난해 국제 여객 6768만명을 기록하며, 세계공항 탑5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공항은 경쟁 상대인 파리 샤를드골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제치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

객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6일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2018년도 세계 공항 실적 보고서'에서 인천공항이 지난해 국제여객 6768만 5000명을 기록,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 여객 기준 세계 5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ACI 발표 결과 1위는 8888만명의 두바이였으며, 런던 히드로(7330만명), 홍콩(7440만명), 암스테르담 스키펀(7095만명)이 뒤를 이었다.

2017년 5위와 6위를 기록했던 샤를드골공항과 창이공항은 각각 6위와 7위로 떨어졌다.

ACI는 공항 관리 및 운영 분야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75개국 2000여개 공항이 회원 가입돼 있어 매년 국제 여객을 기준으로 공항 순위를 발표한다.

한편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T2)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확장 사업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3년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전체 여객수용 능력은 현재 7200만명에서 1억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탑3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뉴스스

서울시, 2022년까지 6642대 주차공간 조성...비강남권 집중

올해 62개소 2922면 지원, 17개소 765면 준공

서울시가 2022년까지 6600여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주택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부터 주차장 건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금 비율도 최고 100%까지 올려 2022년까지 총 664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급한 비강남권역의 주택

가 주차여건 개선이 우선이다.

시는 2022년까지의 목표치 중 63%(4200면)를 비강남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강남3구(송파·강남·서초) 141%, 비강남권 130%다.

시는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 보조 심사 대상을 사업비 60억원 이상 주차장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입체식 주차장뿐 아니라 평면식

주차장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소규모주차장(10면 내외)은 투자 심사를 제외토록 했다.

또 기존 최대 70%까지 지원하던 주차장 건설비용을 최대 100%까지 늘렸다. 최초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30~70% 범위에서 지원하되 추가로 10~30%가 지원된다.

올해는 서울시 총 62곳 2922개 주차장 건설에 시비가 지원, 17곳 765면이 완공된다. 지원대상은 주택가 14곳, 학교 1곳, 공원 5곳, 소규모 42곳 등이다.

뉴스스

'걷기 좋은 서울' 노후된 7만㎡ 보도도 평탄하게 정비

예산 1025억 투입...보행 우선 도시 집중



울퉁불퉁하거나 노후한 7만㎡ 보도가 평탄하고 깔끔하게 정비된다. 서울광장 5배 규모다.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동편의시설 전수 조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된다.

또 퇴계로의 2.6km 구간 공간재편(6~8차로→4~6차로)도 연내에 마무리된다. 주요 3개 도로인 한양도성 내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에 대한 공간재편 설계도 연말까지 완료돼 내년에 착공된다.

서울시는 19일 ▲보도환경 정비 ▲교통약자 눈높이 정책 강화 ▲도심 도로공간 재편-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 확대 ▲보행문화축제 확대 등 4대 분야의 올해 '걷는 도시 서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예산은 102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기초 보행시설의 빈틈없는 정비를 위해 9개 사업에 548억원을 투자한다. 울퉁불퉁하고 노후한 도로를 안전하고 걸기 편한, 평탄한 보도로 정비한다. 서울광장 5배에 달하는 7만㎡의 보도가 대상이다. 예년의 정비가 대규모 면적에 주력

하는 제도다. 올해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부터 적용된다.

시는 시각·지체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점자블록과 턱 낮춤 시설을 정비한다. 용산구 등 21개구 주요 간선도로변(1037개소)이 올해 시행 대상이다. 서울시내 교통사망사고의 62%에 달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에다 나선다. 보행사망자수를 2023년까지 0.84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퇴계로 2.6km 도로 공간 재편이 연내 마무리된다. 6~8차로를 4~6차로로 축소해 보행공간을 확장하고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세운삼가 앞과 퇴계로 4~5가 중간지점에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이런도로 진·출입부 보도 간 모든 횡단보도는 높이를 올려서 보도와의 단차를 없앤다. 보행 평탄성을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60km/h→60km/h)하기 위해서다.

한양도성안 주요도로인 세종대로·충무로·창경궁로의 도로공간 재편 설계도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차로수의 축소와 보도 폭 확장, 조밀주차공간 확보 등이 주요한 개선 사항이다.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도로침몰로 징수와 거리가게 권리보호를 골자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리가게 허가제와 연계한 거리가게 정비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영등포, 동대문, 중랑 등 3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도심 이외에 시민들의 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생활권 도로의 보행자 중심 공간재편, 지역 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올해 총 39개소에서 추가로 시행된다.

뉴스스

서울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여행경비 첫 지원

총 40만원 상당 휴가비 중 25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2000명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여행경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본인이 15만원을 내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지원해 1인당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저임금과 근로조건 취약 노동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총 40만원 상당의 휴가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가 15만원을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는 방식이다. 근로계약서와 3개월간 급여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용 온라인 물에서 숙박·렌터카 예약, 입장권 구입과 같은 국내여행 관광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2000명에게 맞춤형 여행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시는 여행사 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여행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맞춤형 테마코스를 추가로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관광약자를 위해 지난해 개설한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운영을 올해 본격화한다. 여행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한

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포털' 홈페이지가 3월 오픈한다.

또 인기 1인 크리에이터가 서울의 주요 행사, 맛집 등을 유튜브로 소개하는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국'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내 1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내국인용 '서울시민 관광패스'도 6월 시범 출시(5000장)한다. 24시간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챗봇도 개발한다.

주요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국제관광 활성화와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서울관광의 위상을 높여겠다"며 "2023년 국내·외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 세부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외국인 관광객 1350만명, 내국인 관광객 1900만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